

과학기사의 정확성과 오류

무어, 싱글터리

I. 서론

과학자, 커뮤니케이션학자¹⁾ 심지어는 언론²⁾도 미국국민이 모든 종류의 과학뉴스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용어들을 전달하기 쉬운 용어(media appropriate language)로 풀어 쓰는 일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굤필드(Good field)는 TV 방송인의 경우에는 풀어쓰기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있지만 TV 특히 뉴스와 잡지 형태의 프로그래밍에서 그러한 어려움은 대단히 큰 것으로 안다. 기자나 방송국 소유주들이 늘 안고 있는 특종 의식과 상품가치의식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뉴스선택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곡된 뉴스의 원인이 된다」³⁾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참작해 보면, 미국인들의 다수가 텔레비전을 중요한 뉴스소스로 삼고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매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과학뉴스 특히 의학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허황된 희망을 갖는다든지 불필요하게 걱정한다든지 또는 어설픈 건강유지 습관을 갖는 것은 모두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다.

취재원이 봤을 때 텔레비전의 과학뉴스는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그것이 매우 정확하지 않다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오보일까? 그러한 오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논문은 주로 신문의 정확성 조사연구에 적용되어왔던 조사기법을 사용해서 이들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 글은 3대

상업방송국의 보도국에서 행한 과학뉴스 보도에 나타난 정확성 문제에 연구초점을 두고자 한다.

몇몇 학자들은 일반적인 뉴스보도에서 신문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찬리(Charnley)⁴⁾가 개발한 기법은 신문기사를 뽑아 그것을 취재원이나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에게 우송해서 그것의 정확성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들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이 된 기사 중 부정확하다고 본 기사는 때로는 적은 수치로⁵⁾ 나타난 적이 있지만 대체로 40%에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정확성조사가 지방 TV 뉴스⁶⁾를 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적었고 네트워크 뉴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거의 없어왔다.

인쇄매체의 과학뉴스취급을 조사한 연구는 몇 있어 왔다. 오키피(O'Keefe)는 의사를 상대로 한 조사연구에서 의사들은 의학뉴스보도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사의 센세이셔널리즘, 부 정확성, 불충분성과 기자들의 태만, 판단력부족 등이 의학뉴스가 교육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요인들이었다」⁷⁾ 한편 티치너(Tichenor)와 그 외 연구가들은 그들의 조사에서 응답한 과학자들의 58.9%가 과학뉴스를 일반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⁸⁾ 과학자들 자신이 인용된 기사에 대해 물었을 때 94.5%의 응답자들이 해당기사가 전반적으로 정확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티치너는 조사설문지에서 정확성에 대한 항목만을 설정한 연구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탠커드와 라이언(Tankard and Ryan)은 과학기사를 취재원에게 우송해서 그 기사에서 42 가지의 잘못 중 어떤 잘못이라도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⁹⁾ 그 결과에 의하면 기사의 8.8%만이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설문지에 나타난 있음직한 잘못의 항목수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펄포드(Pulford)는 이보다는 적은 항목을 이용한 후속조사(follow up study)를 한적이 있었다.¹⁰⁾ 그 결과를 보면 취재원은 해당기사의 29.4%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결과를 알아냈다. 보어만(Borman)은 여러 종의 잡지에 나타난 기사의 정확성을 일단의 전문가들에게 평가하도록 했다.¹¹⁾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 명중 적어도 8 명꼴로 해당기사의 절반은 정확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정확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 조사해 왔다. 던우디(Dunwoody)와 스코트(Scott)는 과학자들과 언론인들간의 접촉을 조사하였다.¹²⁾ 셰퍼드(Shepherd)와 구드(Goode)는 잡지와 신문에 보도된 마리아화나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기자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기사의 취재원을 선택 하는지를 알아보았다.¹³⁾ 베리(Berry)¹⁴⁾ 와 스칸론(Scanlon)¹⁵⁾ 은 기사의 취재원이 어떤 사람일 때 기사의 잘못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기도 했다.

II. 연구방법

찬리(Charnley)의 조사방법을 TV 뉴스에 적용하는 데는 논리적인 문제가 뒤따라 제기된다. TV 뉴스의 경우 인쇄매체의 기사보다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며,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도 적다. 자주 등장하는 취재원의 신원은 기껏해야 이름 석자나 아니면 인터뷰가 행해진 도시가 밝혀진다. 인터뷰가 없었을 경우 취재원에 관한 보도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문제로 TV 보도의 경우는 기사를 오려내서 우송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연구자는 기사의 원고를 입수할 수는 있겠지만 TV 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청각적 요소를 포함시키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은 어떤 기사를 과학기사로 볼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98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더빌트 뉴스 기록소(Vanderbilt News Archives)의 목록을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과학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는 광범위한 것이다. 어떤 기사를 과학기사의 유목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기사에 나타난 취재원의 신분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했다. 취재원이 기상학자, 의사 혹은 생태학자라면 그 기사를 본질적으로 과학기사인 것으로 간주했다.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취재원으로 된 기사는 한 건으로 보았다. 어느 방송국의 기사를 한 건의 기사로 삼을 것이냐는 결정은 방송국별로 순번을 정해서 했다. ABC, CBS와 NBC의 보도가 똑같은 과학기사라면(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ABC 보도기사를 선택했고 다음에는 CBS, NBC의 순으로 했다.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이 연구의 목적이 어느 방송국의 보도가 정확했느냐를 보려는 데 있지 않고 이들 방송국의 과학뉴스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아보려는데 있다는 이유이다. 둘째로는 취재원 한 명이 세 TV 방송국의 모든 기사를 평가하게 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응답은 중복됨으로 인해 조사결과 자체가 오류를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취재원들도 응답의 대상이 된 기사를 철저히 읽어 보는데 지루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그들의 주소를 파악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보도의 2/3 가량은 적어도 그들의 주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신원이 제시되고 있었다.

조사대상이 된 보도의 오디오 테이프는 반더빌트 뉴스 기록소에 요청해서 녹음했다. 앵커의 도입발언과 인터뷰를 포함하는 녹음부분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늘 구어의 경우는 잘못 이해할 경우가 있는 법이다. 취재원 각자에게 녹음테이프내용을 반송 봉투와 함께 우송했으며 각각의 기사에서 발견되는 오보의 형태와 취재과정 및 과학분야에

대한 언론보도를 대하는 태도를 묻는 설문지를 보냈다.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학력과 과학뉴스를 훌륭하게 보도하는 매체는 어떤 매체이며 또한 얼마나 자주 방송보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10 명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215 부의 설문지를 우송했다. 2 주 후에는 독촉편지를 보냈으며, 설문지를 보내고부터 6 주 후에는 그때까지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에게 다시 발송내용과 설문지를 보냈다. 주소불명 등으로 발송되어 온 것이 41 부였다. 나머지 174 부 중 99 부가 응답되어 회신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전체 우송부수 중 46%의 회신률을 보여준 것이었고, 설문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우송부수에서 본다면 56%의 회신률을 보인 것 이었다.

III. 연구결과

응답자의 거의 절반(48.5%)은 기사가 매우 정확한 것으로 보았으며 34.3%는 대체로 정확하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14%만이 「다소 부정확하다」 고 답했다. 기사가 「매우 부정확하다」 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들이 기사에서 발견한 오보가 어떤 것인지는 <표-1>에서 보면 알 수 있다.

<표-1> 오보의 형태

오보의 형태	%
방송 시간양의 부적합성	38.4%
중요대목의 누락	35.4%
지나치게 센세이셔널한 취급	29.3%
잘못된 인상을 시청자에게 심어주는 경우	22.2%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의미전달	19.2%
기타문제	17.2%
부정확한 인용	13.1%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보도 외의 나머지 영상 부분은 우송치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거의 일년전의 보도를 기억에 의존해서 답해야만 하기도 했다. 영상부분이 취재원을 오도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가장 많이 나온 불평은 그 기사의 방송시간 할애량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느 응답자는 「과학뉴스를 다루는데 있어 짝막한 시간만을 할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했다. 다른 응답자는 「(본인의 연구에 대한)보도가 짝막해서 문외한의 경우에는 잘못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핵에너지의 기원에 대해 1분밖에 할애하지 않다니 어림없는 이야기다!」라고 평했다.

취재원의 35.4%는 중요한 대목이 누락되었다고 답했다. 어느 과학자는 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이러한 피상적인 보도에서는 그것들이 참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자는 구체적인 사실이 누락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예컨대 어떤 보도는 바텐더로 일하는 치과대학졸업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자신이 택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졸업생은 개업면허를 받기 위해 두 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응답자는 말했다.

몇 명의 과학자들은 기자들의 기사취급이 센세이셔널하다는 것을 염려했다. 새로운 과학적 발전을 「획기적인 발전」으로 잘못 보도하고, 낙관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항」이라든지 「단서」를 쏙 빼버린다는 것이다. 어느 응답자는 「그러한 보도는 사실 그것이 한계가 있는 과학적 업적임에 비취볼 때 그렇게 높게 평가할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복잡한 개념을 다루기 보다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용어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때로는 보도되는 정보가 정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을 당시의 치유율은 2%에서 20%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는 보다 높은 치유율 수치를 선택해서는 거기에서 가벼운 증세일 경우까지를 포함시켜 치유율을 95%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과학자는 그 보도가 정확하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중병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카메라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 인용되고 있다고 항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편집을 온당치 않게 함으로써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과학자는 「편집이란 곧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중요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결론이 비논리적이거나 혹은 우스꽝스럽게 제시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전부 제시되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과학자 한 사람은 기자들이 편집을 하는 목적이 사전에 이미 결정된 견해를 제시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몇 가지 다른 문제점들은 기자들이 과학자들의 복잡한 이론과 용어들을 쉽게 바꿔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었다. 과학자는 이론적으로 볼 때 외양(ocean)의 존재가능성을 추리 했을 뿐인데 보도에서는 이미 발견된 것인 양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에서는 을겨울날씨는 금세기 최대의 한파라고 했지만 실은 기상학자는 한파가 닥쳐오긴 했지만 기록적인 한파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불평은 조사항목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것은 명백한 오보에 속하는 것도 있었다. 취재원은 사실일 경우는 1% 정도라고 말했는데 기자는 그것을 75%로 보도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취재원은 「(방송뉴스에서 나오는)자료의 대다수가 주위들은 부정확한 것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설과 되지도 않게 섞었다.」고 말했다.

일부 취재원들은 기자가 정보를 선택해서 끌어들이거나 강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어느 단체의 대표자는 그들 단체의 목적에 대한 발언내용이 생략된 채로 보도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연구가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보도가 「의학기술이나 과학적인 측면이 아닌 환자치료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두 과학자는 실험을 위해 선정된 환자들에 대한 보도가 더 제시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방송언론인들은 「보다 균형된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느 의사는 기자들이 특정뉴스를 시청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선 기존의 학설을 혼선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자료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전체적인 정확성에 대한 태도는 여러 형태의 오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기사가 전반적으로 정확하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7%는 중요한 대목이 누락되었다고 답했다. (예를 들면 제시된 사실들이 정확한 것이긴 해도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한편 18%는 보도가 지나치게 센세이셔널했다고 보았으며 28%는 좀 더 방송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보도가 정확했다고 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중요한 대목을 누락했다고 우려했으며 (53.1%), 방송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답한 사람도 56.2%나 되었다.

응답자의 1/3 가량은 보도가 지나치게 센세이셔널했다(38.2%)고 하면서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33.2%)고 우려했다. 뉴스보도가 대체로 정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의 71.4%는 중요대목이 누락되었다고 답했으며 72.7%는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이 정확하지 않게 인용되었으며 76.9%는 그들의 발언을 온당치 못하게 편집했으며 84.6%는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방송시간이 짧았다고 한 사람은 53.8%, 보도가 센세이셔널했다고 답한 사람은 57.1%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널리 사용하거나 언론기관에서 정확성문제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표-2 참조) 즉 이러한 요인들과 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보았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의 의견은, 기사의 취재가 기사의 정확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일치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1/3 은 방송기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정보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수하느냐 또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입수하느냐에 따라 보도의 정확성이 판가름 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의 약 63%는 「아주 정확하다」고 평했으며, 직접인터뷰에 의한 보도의 경우는 27,3%만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았다. 개인적인 지식이나 기자회견, 현장보도, 인쇄된 논문이나 기타의 것을 근거로 한 보도는, 각 칸의 응답자수가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이기도 했지만 보도의 정확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정확성인식과 다른 대부분의 요인들과의 상관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의 방법(전화, 직접 인터뷰 등)과 횟수도 정확성인식과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기자나 프로듀서와의 접촉시간량과 방송 전에 취재원이 보도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표-2> 뉴스취재과정에 대한 응답

사 람 은?	%
기자프로듀서	62.6%
기타	8.1%
다른 사람	9.1%
접촉한 사람 없다	12.1%
무응답	8.1%

기자나 프로듀서는 어떻게 기사를 취재했는가?	%
개인적인 지식	2.0%

대면 인터뷰	11.1%
보도자료	16.2%
기자회견	6.1%
현장	4.0%
인쇄물	10.1%
기타	11.1%
모르겠다	30.3%
무응답	9.1%

보도되기 전 기자와 접촉한 방식은?	%
대면 인터뷰	48.5%
전화 인터뷰	12.1%
만난 적 없다	31.1%
무응답	8.1%

보도되기 전에 기자 또는 프로듀서와 해당보도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횟수는?	%
한 번	49.5%
두 번	7.1%
세 번 이상	4.0%
한 번도 없었음	22.2%
무응답	10.1%

기자의 취재에 할애된 시간은?	%
1 시간 이하	45.5%
1 - 3 시간 정도	21.2%
3 - 5 시간 정도	2.0%
5 시간 이상	3.0%
전혀 없었다	20.2%
무응답	8.1%

프로듀서의 취재에 할애된 시간은?	%
1 시간 이하	18.2%
1 - 3 시간 정도	6.1%
3 - 5 시간 정도	3.0%
5 시간 이상	1.0%
전혀 없었다	62.6%
무응답	9.1%

보도되기 전에 기자나 프로듀서가 보도 할 내용에 대해 당신과 검토했는지?	%
그렇다	29.3%
그렇지 않다	64.6%
무응답	6.1%

보도내용에 대한 기자의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나?	%
매우 잘 알고 있었다	21.2%
약간 알고 있었다	40.4%
잘 알고 있질 못했다	8.1%
빈약했다	6.1%
만난 일이 없다	16.2%
무응답	8.1%

본 조사에서는 과학보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TV의 과학보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한 보도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72.7%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 또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기자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할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36.4%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47.5%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학력과 보도의 정확성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응답자들의 학력(학사, 석사, 박사, 의학박사, 기타 등)에 따른 정확성 인식의 차이는 한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박사의 63%(41명)는 보도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는 29%(24명)만이 매우 정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반 가량은 보도가 매우 정확했다고 답했다. TV 시청량과 정확성 인식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다고 할 정도의 상관관계는 아니었다. TV 뉴스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뿐이었고 80%는 1주에 한번 정도는 본다고 답했다.

과학보도에 있어 어떤 매체가 가장 훌륭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잡지라고 답한 사람이 70.3% 신문은 19.8%, TV가 7.7%, 라디오가 2.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3개 방송국의 뉴스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75%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IV.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다른 많은 연구(정확성 조사)에서 그래왔듯이 본 조사에서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들에게 정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변호할 기회가 없다. 만약에 변호의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기사마감시간에 쫓기다 보면 객관적인 오보¹⁶⁾를 하기가 쉬우며,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에는 취재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할는지 모른다. 강조나 편집 그리고 센세이셔널리즘 등에 기인하는 보다 주관적인 잘못을 비판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것이다. 언론인들은 복잡하고 난해한 기사거리를 이해하기 쉽게 또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언론인들은 소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학논문을 보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¹⁷⁾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할애된 과학보도 시간량이 적합하지 못했다(38.4%)는 것과 중요한 대목이 누락되었다(35.4%)는 것이었다. 탠커드(Tankard)와 라이언(Ryan)의 조사에서도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잘못된 제일기사」(82.4%)였으며, 그 다음이 「중요한 대목의 누락」(76.3%)이었다. 펄포드(Pulford)의 조사에서도 역시 위 두 가지가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참작하면, 과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시간제한과 지면제한으로 인해 온당하게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행한 태도조사 결과도 탠커드와 라이언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물은 몇 가지 설문내용도 거의 유사했다. 다만 이들의 연구가 신문을 대상으로 했다면 본 연구는 TV를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밖에 없다. 두 가지 항목만을 제외하면 「그렇다」고 답한 퍼센테이지도 매우 유사했다. 「과학보도의 대다수가 사실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신문의 경우에는 57%로, 방송의 경우에는 29.3%에 불과했다(아주 그렇다와 그렇다의 퍼센테이지를 합산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응답자들은 과학보도에 있어 TV가 신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반드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른 설문의 응답을 보면 그 결과는 위의 사실과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탠커드와 라이언의 연구에서 위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던 것은 그들이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형태를 많이 (42개 항목) 제시했기 때문인 것 같다. 과학보도의 대다수가 너무 간결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도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그렇다 한 사람이 신문의 경우 56%인 반면에 TV의 경우는 81.8%였다(이 경우 역시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는 퍼센테이지 합산).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신문보다는 TV가 더 간결하게 취급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과학자들의 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과 과학보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도 흥미 있었다. 응답자들과 48.5%는 자신들이 인용된 기사가 매우 정확했다고 한 반면 「TV의 과학보도가 대체로 정확하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고 한 사람은 34.3%였다. 이러한 사실은 취재원들은 일반적인 과학보도에 대해서보다는 자신들이 인용된 기사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던우디(Dunwoody)와 스코트(Scott)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배경을 보면 76.8%가보도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는 여러 번 있었다고 답했다. 인쇄매체의 기자나 방송매체의 기자 모두 동일한 취재원을 계속해서 접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들 취재원들이 어느 정도 적격인물인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방송의 인터뷰대상자가 되는 것은 전문지식보다는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¹⁸⁾

또한 응답자들은 잡지가 과학보도를 가장 훌륭하게 취급한다고 말했다. 이 결과 역시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잡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곤 하기 때문이라고 던우디와 스코트가 설명한바 있다. 잡지가 다른 매체가 결여하고 있는 높은 수준, 복잡한 정보를 보도하는데 시간과 공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인쇄매체와 TV 매체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의 정확도가(매우 정확하다고 한 응답이 48.5%) 신문의 경우(필포드 연구에서는 기사적 29.4%가 매우 정확하다고 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잡지의 경우(보어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50%)와 비슷하다는 점은 흥미있는 것이다. 물론 신문의 전반적인 보도의 정확도(accuracy rate)는 40%에서 60%내외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3대 TV가 과학보도에 있어서는 지방신문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TV의 보도가 보도량 면에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오보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지 TV기자는 인쇄매체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류나 오식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매체로서 3대 TV는 과학보도의 전문인력을 고용할 연유가 있는 반면에 지방신문은 전문성을 기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인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3대 TV의 과학보도가 그렇게 형편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볼 때 보다 나은 과학보도를 한다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사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에서 너무나 많은 오보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과학보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담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 어느 응답자의 경우 그는 TV 시청자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얻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TV 프로듀서들은 여기에 대해 과학자들이 바라는 것이 반드시 시청자들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과학자들은 철저하고 자세한 보도를 바라고, 언론인들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보도를 지향하는데 이들 두 입장간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갈등은 어느 언론의 보도부문이든 하나의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방송분야에서는 위 두 입장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는 것 같다. 미니 다큐멘터리 지이라든지 잡지형태의 종합기획 지를 보다 많이 시도한다면 과학보도에 할애되는 시간양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 같다.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 시청자들도 피상적인 보도가 아닌 전문기자들이 참여한 보다 재미있는 보도를 찾으려 할 것이고 보도국장들도 과학보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할 것이다.

<주>

1) Clyde Z. Nunn, "Readership and Cover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Newspapers," *Journalism Quarterly* 56:27-30 (1979).

2) 최근의 예를 두 가지 든다면 다음과 같다. : Carey Goldberg, "TV Coverage Of Controversial Medical Issues: TV Guide, November 27, 1982, PP. 43-46 과 Edwin Diamond, "Evaluating Network Coverage of AIDS," *TV Guide*, Oct., 1983, pp.4-8.

3) June 194~B. Goodfield, Reflections on Science and the Media (Washington, D. 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81), pp.22-23.

4) Mitchell V. Charnely, "Preliminary Notes on Study of Newspaper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13 394-40 (1936).

5) 그 외 정확성에 관한 논문으로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것: Michael Singletary, "Accuracy in News Reporting: A Review of the Research: ANPA News Research Report No. 25, January 25, 1980.

6) Michael Singletary and Richard Lipsky, "Accuracy in Local TV News," *Journalism Quarterly*, 54 : 363 (1977) .

7) M. Timothy O'Keefe, "The Mass Media as Sources of Medical Information for

Doctors," *Journalism Quarterly*, 47 99–100 (1970)

8) Phillip J. Tichenor, Clarice N. Olien, Annette Harrison and George Donahue,

"Mass Communic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Accuracy in Science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51: 219–25, 334 (1974).

9) James W. Tankard and Michael Ryan. "News Source Perceptions of Accuracy of Science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51: 219–25, 334(1974)

10) D. Lynn Pulford, "Follow-up of Study of Science News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53: 119–21 (1976).

11) Susan Cray Borman, "Communication Accuracy in Magazine Science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55: 345–6 (1978).

12) Sharon Dunwoody and Byron T. Scott, "Scientists as Mass Media Sources," *Journalism Quarterly*, 59: 52–9 (1982).

13) Robert Cordon Shepherd and Erick Geode, "Scientists in the Popular Press," *New Scientist*, 76: 482–4(1977).

14) Fred C. Berry, "A Study of Accuracy in Local News Stories of Thre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44: 482–90 (1967).

15) Joseph T. Sennion,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Newspaper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49 587–94 (1972).

16) 주관적 오보와 객관적 오보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참고: Gary

C. Lawrence and David L. Grey, "Subjective Inaccuracies in Local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46 : 753-7 (1969).

17) William A. Tillinghast, "Source Control and Evaluation of Newspaper Inaccurac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 13-23 (1982) .

18) 취재원의 선정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논문 참고:

Hebert J. Gons, *Deciding what's News* (N. Y: Pantheon Books. 1979) 와

Edward Jay Epstein, *News from Nowhere* (N. Y. Random House, 1973) .

19) 매체 별 정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다룬 캐나다에서의 연구로는 Edward

Wilson and Douglas M. Howard, "Public Perception of Media Accuracy," *Journalism Quarterly* 55: 73-76(1978).